통근이 거주지역 만족도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 거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은모*·배호중**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인천광역시민의 통근
2.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의 결정요인

Ⅲ. 분석자료 및 변수구성
1. 분석자료: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2. 변수구성

Ⅳ. 통근이 거주지역 만족도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1. 기술통계분석
2. 통근이 거주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3. 통근이 거주지역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및 제언

*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 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교신저자(E-mail: baseball@kwdimail.re.kr, Tel: 02-3156-7145)

http://doi.org/10.34165/urbanr.2023..24.257

투고(접수)일 2023.4.10. 심사(수정)일 2023.4.27. 게재확정일 2023.12.14.

Ⅰ. 서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다. 그 중, 안정된 생활의 중심은 안정된 주거이다. 개인(가구)은 누구나 안정된 주거를 희망하는 가운데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최적의 주거를 '선택'한다. 안정된 주거를 위한 결정은 집의 크기나 형태, 점유 형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지는데 '사는 곳(거주지)' 또한 만족도 높은 주거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삶에 '사는 곳'이 갖는 의미는 크다. '사는 곳'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구별되기도 하고, 투표행태나 정책에 대한 관점과 같은 사고나 의식의 분야까지도 이와 관련지어 이야기된다(손낙구 2008;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0). 일상적인 재화나 서비스와는 달리 주거는 한 번 결정하면 자주 바꾸기 어렵고, 비교적 오랫동안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직주분리가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거주지는 거의 매일 발생하는 통근의 결정요인이고, 통근거리나 통근시간은 그로 인한 시간부족감, 체력 저하 등을 가져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거주지역은 개인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그를 나타내는 중요한 특질로 인식된다. 따라서, 거주지역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면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일정 수준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입장에서도 지역주민의 높은 지역 만족도와 소속감은 지역의 안정성을 높이고, 거주 존속 요인이 된다.

지역에 대한 높은 만족도 및 소속감은 개인뿐 아니라 거주지역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 만족도 및 소속감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은 지방정부 정책 목표가 되기 충분하다. 그리고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거주 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거주 중인 지역에 대

한 만족도 및 소속감과 관련되어 있는지?[1)]'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한된 표본자료를 이용해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한 만족도나 소속감을 살핀 선행연구들이 있지만(장정순·임원선 2015; 유은영 2018; 최윤지·고순철 2020) 대표성 있는 대규모의 통계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주거 결정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 자명한 '통근'을 논의의 중심축으로 삼아 지역에 대한 만족도나 소속감을 이해하고자 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

인천광역시민의 상당수는 서울 등으로 통근하고 있으며, 원거리 통근이나 교통체증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통근은 상당한 시간과 체력, 비용 등이 소요되는 활동이다.

따라서, 매일의 시간 사용을 비롯한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근은 근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활동이므로 1차적으로는 근로활동 또는 직장과 관련한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통근으로 인한 시간소모나 체력소진은 여가 등 시간활용 양상이나 가사노동분담, 가구원과의 관계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양은모·배호중 2023). 나아가 통근은 그가 속해 있는 지역에 관한 생각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통근'을 논의의 중심축으로 삼아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한 만족도나 소속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지역 발전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 고취를 위해 중요하다(이수범 2013; 이서연·조원지 2022)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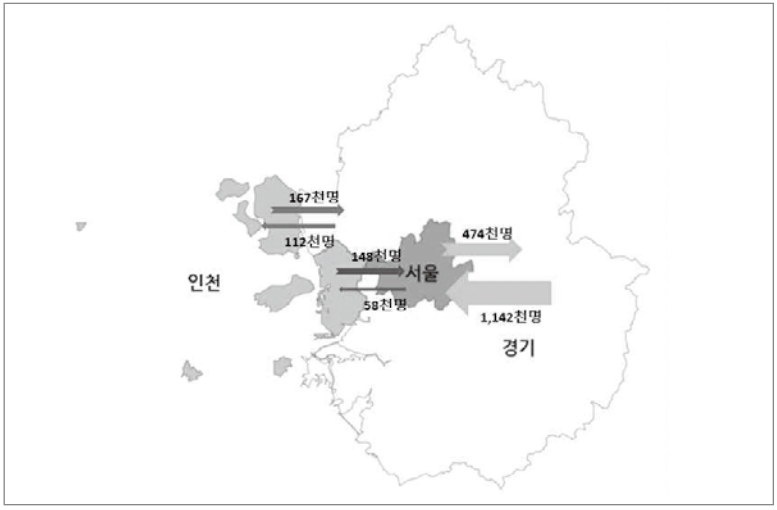
1) Tiebout(1956)의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the feet)'나 Hirschman(1970)의 '지역에 대한 이탈, 항의, 충성도'는 지방정부의 서비스나 정책에 대한 만족감이 주민들의 행동 결정요인 중 하나가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공동화 현상이 기존의 농어촌이나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도심에까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이슈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태도로서 지역만족도, 거주의사, 지역소속감 등을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강혜진 2018).

극적인 참여나 계속 거주 의사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인 연구(김용진·김성희 2016; 이경영 외 2018; 최희용·정문기 2019; 이지은·이경은 2020)에 비추어 보아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근로자들의 지역에 대한 만족도와 소속감에 어떠한 요인들이 관련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인천광역시민의 통근

인천광역시민의 경우, 산업구조와 지가(주택가격) 등 지역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역에 따른 통근양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수도권의 통근 흐름은 [그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 수도권 통근 흐름(2020년)

자료(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1/11/29)

인천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인천 내로 통근하는 이들이 1,042천 명, 서울과 경기도로 통근하는 수는 각각 148천 명과 167천 명이었으며,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는 6천 명이 통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천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인천으로 통근하는 이들을 살펴보면 서울로부터는 58천 명, 경기도에서는 112천 명,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1천 명 수준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통근을 통해 인천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161천 명, 유출되는 인구는 321천 명으로, 통근을 통한 인천광역시의 순유출 인구는 유입의 2배에 가까운 160천 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표 1] 인천광역시의 통근 유·출입

(단위: 천 명)

통근지 / 거주지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 외
인천	1,042	148	167	6
서울	58	3,920	474	35
경기	112	1,142	4,869	79
수도권 외	1	16	46	11,171

자료(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1/11/29)

또 다른 통계자료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보도자료 2023/8/22)를 통해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인천시민의 통근을 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취업자(1,548.5천 명) 중 55.8%에 달하는 863.9천 명은 거주지 외의 타지역으로 통근하고 있다. 구별로 나누어 살폈을 때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타시도와 멀고 섬이라는 특성이 있는 옹진군이나 강화군의 경우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이 상당히 낮았으며, 중구나 서구의 경우에도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이 50%를 밑돌았다. 반면, 계양구(65.2%)나 부평구(63.4%)를 비롯해 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등은 취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타지역으로 통근하고 있다.

[표 2] 시군구 타지역 통근 취업자

(단위: 천 명, %)

	취업자 수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
	거주지 내 통근	거주지 외 타지역 통근	
인천 중구	45.4	29.6	39.5
인천 동구	11.7	19.2	62.3
인천 연수구	75.0	123.3	62.2
인천 남동구	119.7	142.1	54.3
인천 부평구	93.9	163.0	63.4
인천 계양구	53.9	100.8	65.2
인천 서구	155.5	147.1	48.6
인천 미추홀구	84.7	132.6	61.0
인천 강화군	33.1	5.6	14.5
인천 옹진군	11.7	0.6	4.9

자료(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3/8/22)

2.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2)]에 대한 이론적 논의

지역사회(community)는 대개 '일정한 지리적 구역을 전제조건으로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Ross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라는 세 가지

2)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에 대해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크게 보아서는 두 용어 모두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포괄될 수 있는 등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근거나 정의는 없다. 지역이나 학교,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와 소속감을 살핀 연구 중 일부는 소속감은 만족도를 매개(혹은 만족도가 소속감을 매개)하는 변수로 간주하여 분석을 실시하기도 하였다(신종호 외 2011; 지갑성 2020; 김지현·강수진 2021; 김아영 2023). 다만, 두 개념에 대한 명확한 관계 설정이나 실증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과 관련한 요인들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각각을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유사하게 수도권이라는 특성을 지닌 경기도 청년들에 대한 연구에서 경기도에 대한 소속감은 '서울 주변'이라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 만족도와는 별개로 경기도에 대한 소속감은 높지 않게 나타남(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4)을 감안한다면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만족도에 대해 구분지어 살펴볼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분석에 이용한 표본의 지역만족도와 지역소속감 간의 상관계수는 [부록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0.309 수준이었다.

요건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일정의 지리적 영역 내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유대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황명주·김형수 2019).

본질적으로 공간적 존재인 인간에게 '지역'은 사회적으로 과거에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서 뿐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삶의 터전과 다양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인간의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범주이자 인간의 사회적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원천임에 틀림없다(박준식·김영범 2013). 따라서 개인의 생활이나 삶의 질에도 지역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역만족도 또는 지역소속감과 개인의 삶의 질을 살핀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정(+)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이나 높은 정도의 소속감을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기도 한다(Marans and Rodgers 1975; Rodgers 1980; Bernard 2015; Fitz et al. 2016; 오미영 2008; 황정임 외 2011; 김주진·나주몽 2021; 박보은·정선영 2020; 이서연·조원지 2022; 한국리서치 2022). 또한,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의 사회적 네트워크, 지역공동체 소속감, 사회적 신뢰와 같은 관계적 변인을 반영하는 시각이 증가했는데(Helliwell and Putnam 2004; Koo et al. 2016; 박길성 2002) 이는 삶의 질을 논의할 때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반도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을 높이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의미한다(김이선·손명아 2018).

지역만족도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가 개인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로, 지역사회 안에서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Matarrita-Cascante et al. 2010; Bernard 2015; 이서연·조원지 2022 재인용). 지역만족도는 삶의 질이나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참여도나 행태 등과도 연관지어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며(서재호 외 2012; 김태훈 외 2014; 강혜진 2018; 최희용·정문기 2019; 박

보은·정선영 2020) 해당 지역에서의 계속 거주나 타지역으로의 이주의향과 관련짓기도 한다(오미영 2008; 김용진·김성희 2016; 이지은·이경은 2020). 현대 국가의 주요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권미조 외 2018) 지역에 대한 만족 수준을 높이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지역사회의 참여도를 높이고 계속 거주의사를 높이는 등 자치단체의 상당한 정책 목표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역에 대한 높은 소속감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가구에게 그곳에서의 삶이 비교적 만족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소속감 향상 방안을 찾는 것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계속 거주의사를 높이는 노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서는 '국민 삶의 질'을 나타내는 71가지 지표 중 하나로 '지역사회 소속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사회지표(총 270개 통계치)' 구성요소 중 하나로도 '지역사회 소속감'이 활용된다(국가지표체계 2023/4/4). 즉, '지역사회 소속감'은 그 자체로 지역사회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국민의 생활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발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갖는 지표이다.

3.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의 결정요인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한 만족도 및 소속감과 관련된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인적 요인(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 특성 등)과 가구특성(주거점유 형태, 가구소득, 가구원 수 등)이 지역만족도 및 소속감과 관련 있음을 설명한다(Kitchen et al. 2012; 장정순·임원선 2015; 윤우석 2017; 이경영·정문기

2021; 정영아·김윤지 2021).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지역만족도나 소속감에 차이가 있으며(Brown et al. 2005; Kitchen et al. 2012; 장정순·임원선 2015; 조민지·임업 2016; 박관태 외 2022), 연령이 높고(Filkins et al. 2000; Brown et al. 2005; Kitchen et al. 2012; 장정순·임원선 2015; 강혜진 2018; Leviten-Reid et al. 2020; 정영아·김윤지 2021), 혼인상태에 있는 이들(유은영 2018; 최윤지·고순철 2020; 정영아·김윤지 2021)이나 높은 정도의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Filkins et al. 2000; 조민지·임업 2016; 강혜진 2018) 지역만족도나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강상태가 양호한 이들(Kitchen et al. 2012; Leviten-Reid et al. 2020)이나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경우(강혜진 2018; 정영아·김윤지 2021)에도 지역에 대한 만족도나 소속감이 높았다.

또한, 가구특성과 관련해서는 가구원 수가 많고(Miller and Crader 1979; 정영아·김윤지 202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조민지·임업 2016; 정영아·김윤지 2021; 박관태 외 2022) 지역만족도와 소속감이 높았고, 자가에 거주하는 이들의 지역만족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았다(Kitchen et al. 2012; 장정순·임원선 2015; 박관태 외 2022). 그밖에 해당 지역 거주기간(장정순·임원선 2015; Leviten-Reid et al. 2020)이 길거나 지역규모(대도시 등) 및 대도시와의 거리 등에 따라서도(Kitchen et al. 2012; McKnight et al. 2019; Leviten-Reid et al. 2020) 지역만족도나 소속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통근 또한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긴 통근시간은 각종 단체에 참여와 같은 사회참여의 시간을 감소시켜 사회자본 중에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Besser et al. 2008; 유경빈 2017), 여가나 가족활동, 수면 시간을 저해하는 상당한 요인이 제시

되기도 한다(김준형 2016; 유재언 2016; 이윤영·차운아 2023 재인용). 여가나 가족활동이 대부분 거주 중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긴 통근은 지역만족도 또는 지역소속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개인에게 지리적 특성이나 소속감 등이 행정구역을 단위로 체감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의 상당수는 행정구역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멀고/가까움 등의 거리적 체감도나 소속감 등은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거리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Ⅰ: 통근시간이 길면 지역소속감이 낮을 것이다.
가설Ⅱ: 통근시간이 길면 지역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Ⅲ: 통근거리가 멀면 지역소속감이 낮을 것이다.
가설Ⅳ: 통근거리가 멀면 지역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Ⅲ. 분석자료 및 변수구성

1. 분석자료: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인천광역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근이 거주지역(구/군)에 대한 만족도 및 소속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수립에 활용할 지역 맞춤 자료 마련을 위해 건강, 가구와 가족,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등 10개 영역별로 시민의 평소 생각을 살피고자 매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인천광역시 2021). 본 연구는 2020년

11~12월에 걸쳐 인천시내 거주 표본 6,000가구(가구주 및 만 13세 이상 가구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3)]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는 강화군, 옹진군 등 인천의 10개 구/군의 가구(구별 480~700가구)에 속해 있는 가구원 12,619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통근 여부와 함께 통근 소요 시간(편도 기준)을 묻고 있으며, 통근 지역에 대해서도 구(區) 단위까지 응답을 받고 있어 통근자들의 통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통계는 충분한 대표성을 지닌 대규모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204010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 전역에 거주 중인 근로자들의 '통근시간'뿐만 아니라 '통근거리'도 비교적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를 분석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했다. 또한, 통근하고 있는 7,665명의 근로자 표본을 추려내어 이들의 통근(통근시간과 통근거리)이 그들이 사는 지역(구/군)에 대한 만족도 및 소속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2. 변수구성

1) 종속변수: 거주지역(구/군)에 대한 만족도, 소속감

거주지역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개인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균형 잡혀 있음을 대변한다. 거주 중인 지역(구/군)에 대한 소속감 또한 해당 지역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며, 지역에 대한 기여나 계속

3)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가 최신의 자료이기는 하나 해당 조사에서는 광역시·도 수준에서의 통근지역에 대해서만 변수가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록 추정을 통한 값이기는 하나) 통근거리 또한 연구의 중요한 설명변수로 설정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자세한 통근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2020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거주 의향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한 만족도'와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한 소속감'의 두 가지 종속변수를 설정[4]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거주 중인 지역(구/군)에 대한 만족도'는 「인천광역시 사회조사」의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군)의 전반적인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 '⓪전혀 만족하지 않는다~⑩매우 만족한다'의 11점 척도로 측정한 응답 값을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두 번째 종속변수로 사용한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동네(구/군)에 대해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5점 척도(①전혀 느끼지 않는다~⑤매우 많이 느낀다)로 측정된 값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독립변수: 통근시간, 통근거리[5] 및 통근유형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만족도를 둘러싼 기존의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았던 '통근'에 초점을 두고 통계자료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

4)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삼은 지역만족도나 지역소속감의 경우 개인의 측면에서는 '삶의 질'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으며, 지역만족도나 지역소속감 간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삶의 질에 비해 지역만족도나 지역소속감이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더욱 크다고 판단해 이를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관관계를 통해([부록 표 1])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둘을 각각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만큼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아 지역만족도나 지역소속감 각각을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5) 후술할 '간접적으로 산출한 통근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으며, 통근시간과도 비례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도 상당해 분석의 중요한 축인 설명변수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인천광역시 사회조사」를 통해 측정된 통근시간의 경우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자기기입식) 측정된 변수인만큼 오류의 가능성 등이 존재하며, 통근에 대한 실측 통계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의 측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도출하였다는 한계는 있으나) 통근거리의 측면을 통해서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의 논의의 중심축인 통근에 대해 보다 선명하게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이를 활용한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조사」에 포함된 몇 가지 문항을 이용해 크게 '통근시간'과 '통근거리' 그리고 통근지에 따른 '통근유형'의 세 측면에서 통근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변수를 생성하였다.

우선 '통근시간'의 측면에서는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에서 평균 소요시간(편도 기준)을 분 단위의 연속형 변수로 묻고 있어 이를 활용해 '통근시간'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해보았다. 이어서 '통근거리' 또한 통근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측면으로 여기고 '통근거리'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근로자들의 이동양상을 단순화하면 '집→일터→집'으로 구성되므로 집과 일터의 위치를 알 수 있다면 양자 간의 거리를 통해 각자의 통근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집의 위치나 일터의 위치는 상당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대부분의 통계자료에서는 세부주소까지는 조사 또는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에서는 가구 및 통근하는 지역에 대해서 시/구/군 수준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이용해 가구 및 일자리가 속한 최소 행정단위의 행정기관의 위치를 추출하여 가구와 일자리의 위치변수를 생성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코드북에 제시된 시/구/군청의 위치를 '위도경도찾기 홈페이지'를 통해 [그림 2]와 같이 위도·경도 정보로 변환하였으며, 변환된 위도·경도 정보를 이용하여 집과 일자리 간 직선거리(≒통근거리)를 산출하였다.

[그림 2] 구청 좌표의 획득 - 미추홀구청의 예

자료(출처): Esran 위도경도찾기 홈페이지

집과 일터가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 있으면 각 행정기관 간 산출된 거리를 통근거리로 삼았으며,[6] 동일한 행정구역에 속해 있으면 통근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문항의 응답값을 이용해 차량 등(자가용, 버스, 오토바이, 택시 등)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구축한 차량 평균속도 자료(한국교통연구원 View_T 홈페이지)에 통근시간에 대한 응답값을 곱한 수치를 통근거리로 간주[7]하였고, 도보로 통근한다고 응답한 이들에 대해서는 시속 5㎞의 속도를 가정해 '5㎞×통근 소요시간' 만큼

6) 실제 이동경로가 아닌 집과 직장 간 수학적으로 산출한 '직선거리'를 활용했으므로 통근거리가 과소계상되었을 것이다. 또한 구별로 교통체증의 정도나 교통여건 등이 다르고 구(區) 자체도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구 단위로 통근을 살펴보았다고 할지라도 실제 통근거리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집과 일터의 주소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이를 온전히 알 수 있는 대규모 자료의 활용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통근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드문 이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통근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변수를 생성하고자 고민하였는데 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 및 일터가 속한 최소 행정단위인 시/구/군청의 좌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근거리를 산출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7) 출·퇴근 시간대가 하루 중 가장 혼잡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해 응답자가 속한 구의 도로들의 혼잡시 평균속도를 이용하였으며, 동일구로 통근한다고 응답한 만큼 각 구의 면적과 동일한 원의 지름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상한을 두고 통근거리의 추정값을 산출하였다. 다만, 해당자료는 2019년이 이용가능한 최신자료라는 아쉬움이 있다.

을 통근거리로 삼았다.

[그림 3] 도로 평균속도 자료의 획득

자료(출처): 한국교통연구원 View_T 홈페이지

이밖에 '통근시간'과 '통근거리' 뿐만 아니라 통근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피기도 하였는데 간단히 '동일 구 통근'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동일 구 통근', '인천 내 다른 구 통근', '인접 시 통근', '근접 시 통근', '서울로 통근', '기타 지역 통근'의 6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핀 모형도 설정하였다.

3) 통제변수: 개인특성 및 가구특성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지역만족도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지역만족도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는데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으로 구분해 통제변수들을 설정하였다.

개인특성과 관련해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를 포함하였으며, 통근에 초점을 둔 연구인만큼 일과 관련해 일과 여가 중 어느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와 함께 종사상 지위도 각각을 구분하는 가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가구원 수, 주거점유형태, 가구소득을 고려하였다. 주거점유형태와 가구소득은 몇 가지 범주로 구분짓는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통근이 거주지역 만족도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1. 기술통계분석

인천광역시민의 통근이 지역만족도 및 지역에 대한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기초통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통근근로자 7,665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평균 3.55점으로 '보통이다'와 '비교적 느낀다'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역만족도는 평균 6.63점으로 보통(5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통제변수로 이용한 변수 중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0.9%에 해당하는 4,668명은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48.1세였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4.9%는 고졸미만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졸과 전문대졸이 각각 44.3%와 17.6%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62.6%는 가구주였으며, 미혼은 15.7%, 배우자가 있는 이들은 76.8%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신체건강 상태와 정신건강 상태의 평균이 각각 3.75점과 3.83점이었고, 5점에 가까울수록 여

가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측정한 일과 여가 중시정도는 평균 2.57점으로 '여가에 더 집중' 쪽에 위치해 있었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가장 많았고(61.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6.9%)와 임시근로자(10.4%)가 뒤를 이었다.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가구원 수는 2.69명이었다. 주거점유형태는 자가가 62.8%로 가장 높았고, 전세와 월세의 비중은 각각 31.4%와 5.5%였다. 응답자의 55.1%는 부채가 있다고 응답했고, 가구소득은 400~500만 원 미만 범주에 속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1/4정도(25.9%)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 원 미만과 500~600만 원 미만이 각각 19.9%와 19.0%를 차지했다. 600만 원이 넘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6.0%였고, 5.0%는 가구소득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자 설명변수로 삼은 통근을 살펴보면 통근 소요시간(편도 기준)은 평균 30.3분이다.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15.5%는 통근시간이 15분 미만이었고, 31.6%는 통근시간이 15~30분이었다. 35.3%는 30~45분 사이에 속하였으며, 7.3%는 45~60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 소요시간이 1시간을 넘는 이들의 비율은 10.3%였다.

가구와 일터가 속한 구/군청의 좌표 및 통근 소요시간 등을 통해 산출한 통근거리의 평균값은 7.85㎞였다. 이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34.8%는 5㎞ 미만 범주에 속하였고, 42.5%는 5~10㎞ 범위에 일터가 위치해 있었다. 11.5%는 10~15㎞ 범주에, 11.3%는 15㎞를 넘었다.

일터의 소재지에 따른 통근유형을 살펴보면 절반에 가까운 47.1%는 집과 동일한 구에 위치한 일터로 통근한다고 응답하였고, 38.4%는 인천광역시 내 다른 구로 통근하고 있었다. 부천, 시흥 등 인천과 접한 지역으로 통근하는 비율은 4.1%였으며, 서울로 통근하는 이들은 8.6%를 차지하였다.[8)]

8) 분석에 이용한 표본의 변수 간 다중공선성 점검을 위해 연속형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부록 표 1]에 제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이 우려될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표 3] 분석에 이용한 변수 설명 및 기술통계

변수 특성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또는 %	표준편차 또는 빈도
종속 변수		지역에 대한 소속감		5점 척도로 측정한 지역(구/군)에 대한 소속감	3.554	0.745
		지역만족도		11점 척도로 측정한 지역(구/군)에 대한 만족도	6.625	1.325
통제변수	개인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60.9	4,668
		연령		응답자의 연령(세)	48.079	13.466
		연령제곱		연령제곱÷100	24.929	13.287
		교육 수준	고졸미만	고졸미만=1, 그 외=0	4.9	373
			고졸	고졸=1, 그 외=0	44.3	3,397
			전문대졸	전문대졸=1, 그 외=0	17.6	1,349
			대졸 이상	대졸 이상=1, 그 외=0	33.2	2,546
		가구주 여부		가구주=1, 그 외=0	62.6	4,800
		혼인 상태	미혼	미혼=1, 그 외=0	15.7	1,202
			유배우	배우자 있음=1, 그 외=0	76.8	5,884
			사별·이혼	사별·이혼=1, 그 외=0	7.6	579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5점 척도로 측정한 신체건강 (①매우 나쁘다~⑤매우 좋다)	3.746	0.702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5점 척도로 측정한 정신건강 (①매우 나쁘다~⑤매우 좋다)	3.830	0.720
		일 vs. 여가 (여가중시 정도)		①일에 더 집중~⑤여가에 더 집중	2.566	0.839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1, 그 외=0	61.8	4,739
			임시근로자	임시근로자=1, 그 외=0	10.4	799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1, 그 외=0	2.8	216
			고용원有 자영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	5.4	413
			고용원無 자영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	16.9	1,293
			기타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1	2.7	205

변수는 없으며, 본문에는 미제시된 분산팽창계수(VIF)도 0.2 이하의 값을 나타내는 변수는 없었다. 즉, 다중공선성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구별로 응답자의 통근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부록 표 2]에 부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변수 특성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또는 %	표준편차 또는 빈도
통제변수	가구특성	가구원 수		전체 가구원 수(명)	2.692	0.934
		주거점유형태	자가	자가=1, 그 외=0	62.8	4,814
			전세	전세=1, 그 외=0	31.4	2,404
			월세	월세=1, 그 외=0	5.5	424
			기타	무상 및 기타=1, 그 외=0	0.3	23
		부채유무		부채 있음=1, 없음=0	55.1	4,221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1, 그 외=0	5.0	383
			200~300만 원	200~300만 원 미만=1, 그 외=0	14.1	1,081
			300~400만 원	300~400만 원 미만=1, 그 외=0	19.9	1,529
			400~500만 원	400~500만 원 미만=1, 그 외=0	25.9	1,987
			500~600만 원	500~600만 원 미만=1, 그 외=0	19.0	1,456
			6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상=1, 그 외=0	16.0	1,229
설명변수	통근특성	통근시간		통근 소요 시간(편도 기준, 분)	30.341	19.022
		통근시간범주	0~15분 미만	0~15분 미만=1, 그 외=0	15.5	1,190
			15~30분 미만	15~30분 미만=1, 그 외=0	31.6	2,424
			30~45분 미만	30~45분 미만=1, 그 외=0	35.3	2,705
			45~60분 미만	45~60분 미만=1, 그 외=0	7.3	558
			60분 이상	60분 이상=1, 그 외=0	10.3	788
		통근 거리(㎞)		일터까지의 거리(㎞) (집↔일터 소재지 간 거리)	7.849	7.572
		통근거리범주	0~5㎞ 미만	0~5㎞ 미만=1, 그 외=0	34.8	2,665
			5~10㎞ 미만	5~10㎞ 미만=1, 그 외=0	42.5	3,255
			10~15㎞ 미만	10~15㎞ 미만=1, 그 외=0	11.5	881
			15㎞ 이상	15㎞ 이상=1, 그 외=0	11.3	864
		동일 구(區)내 통근 여부		동일 구 통근=1, 그 외=0	47.1	3,608
		통근유형	동일 구 통근	동일 구 통근=1, 그 외=0	47.1	3,608
			인천 내 다른 구	인천 내 다른 구로 통근=1	38.4	2,945
			인접 시 통근	인접 시(부천, 시흥, 김포)로 통근=1	4.1	317
			근접 시 통근	근접 시(광명, 안산, 군포, 안양, 고양, 과천, 의왕) 통근=1	0.9	71
			서울로 통근	서울로 통근=1	8.6	662
			기타 지역 통근	인천, 서울, 인·근접 외의 지역 통근=1	0.8	62
N				7,665		

2. 통근이 거주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근로자의 특성 및 그가 속한 가구의 특성들을 동시에 고려한 상태에서 통근과 지역만족도의 관련성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통제변수들은 동일하게 통제하고, 통근을 나타내는 변수들만 다르게 구성한 다양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통근시간([표 4])', '통근거리([표 5])', '통근유형([표 6])'을 설명변수로 삼아 분석하였다. 통근시간은 연속형 변수를 그대로 쓴 모형([모형Ⅰ])과 이를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해 각 범주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를 이용한 모형([모형Ⅱ])으로 설정하였다. 통근거리 또한 추정된 통근거리를 연속형의 변수로 반영한 모형([모형Ⅲ])과 통근거리를 범주로 구분해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를 이용한 모형([모형Ⅳ])으로 구성하였다. 통근유형 또한 동일 구 통근 여부로 구분한 모형([모형Ⅴ])과 통근지역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한 모형([모형Ⅵ])을 통해 통근이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변수를 중심으로 [모형Ⅰ]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과 연령제곱항이 각각 (-)와 (+)의 계수값을 나타낸다. 미분값을 통해 이를 분석해보면 43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역만족도가 낮아지다가 이후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만족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기준변수인 고졸인 이들에 비해 대졸 이상인 이들의 지역만족도가 높았으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배우자가 있는 이들에 비해 미혼 또는 사별·이혼 상태에 있는 이들의 지역만족도가 낮았다.

이와 함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할수록 지역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라면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은 이들일수록 지역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

[표 4] 통근시간이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Ⅰ]		[모형Ⅱ]	
				B	$S.E.$	B	$S.E.$
상수항				5.168***	0.256	4.905***	0.258
통제변수	개인특성	성별		-0.004	0.038	-0.004	0.038
		연령		-0.056***	0.009	-0.053***	0.009
		연령제곱		0.066***	0.009	0.062***	0.009
		교육수준 (ref.=고졸)	고졸미만	-0.069	0.073	-0.064	0.073
			전문대졸	-0.032	0.043	-0.029	0.043
			대졸 이상	0.138***	0.039	0.137***	0.039
		가구주 여부		0.036	0.041	0.043	0.041
		혼인상태 (ref.=유배우)	미혼	-0.180***	0.052	-0.179***	0.052
			사별·이혼	-0.290***	0.062	-0.287***	0.062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0.314***	0.026	0.318***	0.026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0.317***	0.025	0.311***	0.025
		일 vs. 여가(여가 중시 정도)		0.087***	0.017	0.083***	0.017
		종사상 지위 (ref.=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0.059	0.050	-0.063	0.050
			일용근로자	-0.151†	0.090	-0.175†	0.090
			고용원有 자영업	0.059	0.065	0.055	0.065
			고용원無 자영업	0.103*	0.044	0.083†	0.044
			기타	0.154†	0.091	0.131	0.091
	가구특성	가구원 수		0.011	0.019	0.010	0.019
		주거점유 형태 (ref.=월세)	자가	0.235***	0.065	0.233***	0.065
			전세	0.203**	0.066	0.198**	0.066
			기타	0.708**	0.263	0.690**	0.263
		부채유무		-0.261***	0.030	-0.258***	0.030
		가구소득 (ref.= 400~500만 원)	200만 원 미만	-0.441***	0.078	-0.445***	0.078
			200~300만 원	-0.131*	0.051	-0.130*	0.051
			300~400만 원	-0.143***	0.042	-0.136*	0.042
			500~600만 원	-0.142***	0.042	-0.136*	0.042
			600만 원 이상	-0.051	0.045	-0.050	0.045
설명변수	통근시간	통근시간(편도기준, 분)		-0.004***	0.001		
		통근시간 범주 (ref.=30~45분)	0~15분 미만			0.306***	0.046
			15~30분 미만			0.107**	0.035
			45~60분 미만			0.049	0.057
			60분 이상			-0.016	0.050
$F-value$				51.46***		47.16***	
R^2				0.1587		0.1607	
$Adj.R^2$				0.1557		0.1573	
N				7,665			

자료(설명): † p<0.1, * p<0.05, ** p<0.01, *** p<0.001

위와 관련해서는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의 지역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지역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월세에 거주 중인 이들에 비해 자가 또는 전세로 살고 있는 이들의 지역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함께 다른 조건이 같다면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지역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0.261점 낮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기준변수로 삼은 400~500만 원 범주에 속해 있는 이들에 비해 다른 범주에 속한 이들의 지역만족도가 낮았고, 가구소득이 200만 원에 미만일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통근과 관련해서는 통근시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통근시간이 길수록 지역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모형II]의 결과 또한 통제변수들의 계수값이나 유의도 등은 [모형I]과 비슷하게 나타났고 짧은 정도의 통근시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이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준변수로 삼은 30~45분 미만 범주에 속한 이들에 비해 통근시간이 15분 미만인 이들 및 15~30분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경우 지역만족도가 각각 0.306점과 0.107점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표 5]에는 통근거리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I], [모형II]와 동일한 통제변수들을 사용했고, 통근시간 대신 연속형의 통근거리([모형III])와 통근거리 범주([모형IV])를 분석하였다.

[모형III]~[모형IV]의 경우, 개인 및 가구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들의 계수값 크기와 통계적 유의도가 유사하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통근거리가 멀수록 지역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형III]에서 일터까지의 거리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다

[표 5] 통근거리가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III]		[모형IV]	
				B	$S.E.$	B	$S.E.$
상수항				5.124***	0.256	5.130***	0.256
통제변수	개인특성	성별		-0.006	0.038	-0.003	0.038
		연령		-0.056***	0.009	-0.055***	0.009
		연령제곱		0.067***	0.009	0.065***	0.009
		교육수준 (ref.=고졸)	고졸미만	-0.076	0.073	-0.075	0.073
			전문대졸	-0.028	0.043	-0.024	0.043
			대졸 이상	0.141***	0.039	0.143***	0.039
		가구주 여부		0.036	0.041	0.042	0.041
		혼인상태 (ref.=유배우)	미혼	-0.192***	0.052	-0.187***	0.052
			사별·이혼	-0.297***	0.062	-0.296***	0.062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0.314***	0.026	0.320***	0.026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0.319***	0.025	0.315***	0.025
		일 vs. 여가(여가 중시 정도)		0.087***	0.017	0.083***	0.017
		종사상 지위 (ref.=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0.052	0.050	-0.055	0.050
			일용근로자	-0.144	0.090	-0.159†	0.090
			고용원有 자영업	0.068	0.065	0.067	0.065
			고용원無 자영업	0.111*	0.044	0.098*	0.044
			기타	0.166†	0.091	0.145	0.091
	가구특성	가구원 수		0.007	0.019	0.006	0.019
		주거점유 형태 (ref.=월세)	자가	0.237***	0.065	0.235***	0.065
			전세	0.206**	0.066	0.205**	0.066
			기타	0.691**	0.263	0.659*	0.263
		부채유무		-0.266***	0.030	-0.264***	0.030
		가구소득 (ref.= 400~500만 원)	200만 원 미만	-0.435***	0.078	-0.431***	0.078
			200~300만 원	-0.133**	0.051	-0.133**	0.051
			300~400만 원	-0.140***	0.042	-0.135**	0.043
			500~600만 원	-0.140***	0.042	-0.135**	0.042
			600만 원 이상	-0.041	0.045	-0.046	0.045
설명변수	통근거리	통근거리		-0.011***	0.002		
		통근거리 범주 (ref.=5㎞ 미만)	5~10㎞ 미만			-0.169***	0.034
			10~15㎞ 미만			-0.162**	0.050
			15㎞ 이상			-0.263***	0.051
$F-value$				51.44***		48.28***	
R^2				0.1587		0.1595	
$Adj.R^2$				0.1556		0.1562	
N				7,665			

자료(설명): † p<0.1, * p<0.05, ** p<0.01, *** p<0.001

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터가 먼 곳에 있을수록 지역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터까지의 거리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 [모형Ⅳ]에서는 기준변수로 삼은 집단(5㎞ 미만)에 비해서 그보다 먼 정도의 집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가 모두 (-)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어 일터까지의 거리가 멀면 상대적으로 직장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계수값의 크기 또한 거리에 완전히 비례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다른 조건이 같다면 5~10㎞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지역만족도는 (기준변수로 삼은 5㎞ 미만 집단에 비해) 0.169점 낮았으며, 10~15㎞ 집단에 속하면 0.162점 낮았다. 가장 먼 정도의 집단인 15㎞ 이상에 속하면 가장 낮은 정도인 0.263점 낮았다.

[표 6]은 통근유형을 설명변수로 삼아 앞선 분석과 동일한 통제변수를 사용해 지역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도 이분형(0/1)으로 구성한 동일 구내 통근 여부([모형Ⅴ])와 동일 구, 인접 시, 근접 시, 서울 등 여섯 개의 통근지역으로 구분한 더미변수([모형Ⅵ])의 두 가지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Ⅴ]와 [모형Ⅵ] 또한 통제변수들의 계수값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도가 유사하고, 통근 관련 변수의 계수값들을 살펴보면 통근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통근하는 이들의 지역만족도가 낮음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구에 속해 있는 일터로 통근하는 이들의 지역만족도가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이들에 비해 0.147점 높았다([모형Ⅴ]).

끝으로 [모형Ⅵ]의 결과를 살펴보면 동일 구(區)내 통근하는 이들에 비해 '인천 내 다른 구', '인접 시 통근', '근접 시 통근', '서울로 통근', '기타지역 통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지역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계수값의 크기로 미루어 보아(동일 구 내 통근 > 인천 내 다른 구 통근 > 인접 시 통근 > 근접 시

[표 6] 통근유형이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V]		[모형VI]	
				B	*S.E.*	*B*	*S.E.*
상수항				4.958***	0.258	5.090***	0.256
통제변수	개인특성	성별		-0.005	0.038	0.005	0.038
		연령		-0.056***	0.009	-0.056***	0.009
		연령제곱		0.066***	0.009	0.066***	0.009
		교육수준 (ref.=고졸)	고졸미만	-0.075	0.073	-0.073	0.073
			전문대졸	-0.030	0.043	-0.026	0.043
			대졸 이상	0.137***	0.039	0.147***	0.039
		가구주 여부		0.040	0.041	0.037	0.041
		혼인상태 (ref.=유배우)	미혼	-0.193***	0.052	-0.186***	0.052
			사별·이혼	-0.300***	0.062	-0.290***	0.062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0.321***	0.026	0.317***	0.026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0.311***	0.025	0.316***	0.025
		일 vs. 여가(여가 중시 정도)		0.086***	0.017	0.086***	0.017
		종사상 지위 (ref.=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0.054	0.050	-0.065	0.050
			일용근로자	-0.140	0.090	-0.147†	0.090
			고용원有 자영업	0.063	0.065	0.052	0.065
			고용원無 자영업	0.110*	0.044	0.105*	0.044
			기타	0.162†	0.091	0.167†	0.091
	가구특성	가구원 수		0.006	0.019	0.010	0.019
		주거점유 형태 (ref.=월세)	자가	0.248***	0.065	0.247***	0.065
			전세	0.214**	0.066	0.214**	0.066
			기타	0.694**	0.263	0.704**	0.263
		부채유무		-0.260***	0.030	-0.257***	0.030
		가구소득 (ref.= 400~500만 원)	200만 원 미만	-0.448***	0.078	-0.445***	0.078
			200~300만 원	-0.134**	0.051	-0.134**	0.051
			300~400만 원	-0.141***	0.043	-0.139**	0.042
			500~600만 원	-0.140***	0.042	-0.136**	0.042
			600만 원 이상	-0.044	0.045	-0.038	0.045
설명변수	통근유형	동일 구(區)내 통근 여부		0.147***	0.031		
		통근유형 (ref.=동일 구 통근)	인천 내 다른 구			-0.098**	0.032
			인접 시 통근			-0.285***	0.073
			근접 시 통근			-0.694***	0.147
			서울로 통근			-0.252***	0.055
			기타지역 통근			-0.518***	0.157
$F-value$				51.18***		46.00***	
R^2				0.1580		0.1617	
$Adj.R^2$				0.1549		0.1582	
N				7,665			

자료(설명): † p<0.1, * p<0.05, ** p<0.01, *** p<0.001

통근 등) 먼 지역으로 통근하는 이들의 지역만족도가 더 낮은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서울로 통근하는 이들의 경우 지역만족도의 계수값이 인천 내로 통근하는 이들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타지역으로 통근하는 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해 해석해보면 자가보유의 가능성이나 동일한 가격대비 넓고 쾌적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인천 거주를 '선택'한 이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3. 통근이 거주지역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원거리 또는 장시간의 통근은 지역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낮출 가능성도 상당할 것이다. 과도한 통근에 따른 피로감이나 가정과 일터가 속한 지역 간의 이질성은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낮출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앞선 지역만족도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0~10점 척도를 통해 측정한 응답자들의 지역소속감에 대해 통근시간([표 7]), 통근거리([표 8]), 통근유형([표 9])을 달리한 6가지의 분석모형을 통해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근로자들의 통근과 지역(군/구)에 소속감 간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해보았다.

우선 통근시간이 지역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한 [표 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변수를 중심으로 [모형Ⅰ]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과 연령제곱항이 각각 (-)와 (+)의 계수값을 나타내었는데 미분값을 통해 이를 분석해보면 61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역소속감이 낮아지다가 이후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소속감도 높은 양상을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혼인상태와 관련해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배우자가 있는 이들에 비해 미혼 또는 사별·이혼 상태에 있는 이들의 지역소속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통근시간이 지역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Ⅰ]		[모형Ⅱ]	
				B	$S.E.$	B	$S.E.$
상수항				2.617***	0.145	2.418***	0.146
통제변수	개인특성	성별		-0.022	0.021	-0.022	0.021
		연령		-0.018***	0.005	-0.016**	0.005
		연령제곱		0.032***	0.005	0.029***	0.005
		교육수준 (ref.=고졸)	고졸미만	-0.067	0.041	-0.062	0.041
			전문대졸	0.042†	0.024	0.044†	0.024
			대졸 이상	0.085	0.022	0.084***	0.022
		가구주 여부		0.005	0.023	0.009	0.023
		혼인상태 (ref.=유배우)	미혼	-0.150***	0.029	-0.146***	0.029
			사별·이혼	-0.086*	0.035	-0.082*	0.035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0.071***	0.015	0.073***	0.015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0.155***	0.014	0.150***	0.014
		일 vs. 여가(여가 중시 정도)		0.082***	0.010	0.079***	0.010
		종사상 지위 (ref.=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0.073**	0.028	-0.075**	0.028
			일용근로자	-0.270***	0.051	-0.291***	0.051
			고용원有 자영업	0.003	0.037	-0.001	0.037
			고용원無 자영업	0.068**	0.025	0.051*	0.025
			기타	0.129*	0.051	0.107*	0.051
	가구특성	가구원 수		0.035***	0.011	0.035***	0.011
		주거점유 형태 (ref.=월세)	자가	0.045	0.037	0.040	0.037
			전세	0.063†	0.037	0.058	0.037
			기타	0.081	0.149	0.062	0.148
		부채유무		-0.125***	0.017	-0.123***	0.017
		가구소득 (ref.= 400~500만 원)	200만 원 미만	-0.143**	0.044	-0.147***	0.044
			200~300만 원	0.000	0.029	0.000	0.029
			300~400만 원	0.015	0.024	0.020	0.024
			500~600만 원	-0.019	0.024	-0.014	0.024
			600만 원 이상	0.063*	0.026	0.065*	0.025
설명변수	통근시간	통근시간		-0.004***	0.000		
		통근시간 범주 (ref.=30~45분)	0~15분 미만			0.249***	0.026
			15~30분 미만			0.057**	0.020
			45~60분 미만			0.054†	0.032
			60분 이상			-0.066*	0.028
$F-value$				48.13***		45.24***	
R^2				0.1500		0.1552	
$Adj.R^2$				0.1469		0.1518	
N				7,665			

자료(설명): † p<0.1, * p<0.05, ** p<0.01, *** p<0.001

또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할수록 지역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라면 일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지역소속감이 높았다. 종사상 지위와 관련해서는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의 지역소속감이 낮았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지역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특성과 관련해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역소속감이 높았으며, 다른 조건이 같다면 부채를 보유한 이들의 지역소속감이 미보유자들에 비해 0.125점 낮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기준변수로 삼은 400~500만 원 집단에 비해) 지역소속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았으며, 600만 원을 넘을 경우 지역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통근과 관련해서는 연속형의 통근시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통근시간이 길수록 지역소속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통근시간이 10분 증가할수록 지역소속감은 0.04점 낮았다.

[모형Ⅰ]과 동일한 통제변수를 활용하되 통근시간을 다섯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변수로 삼아 분석한 [모형Ⅱ]의 결과 또한 통제변수들의 계수값이나 유의도 등은 [모형Ⅰ]과 유사하였으며, 설명변수인 통근시간 범주 더미변수와 관련해서는 짧은 정도의 통근시간에 속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준변수로 삼은 30~45분 미만 범주에 속한 이들에 비해 통근시간이 15분 미만일 경우 지역소속감이 0.249점, 15~30분 범주에 속할 경우 0.057점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통근시간이 1시간을 넘을 경우 지역소속감이 0.066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표 8]에는 통근거리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거주 중인 지역(군/구)

[표 8] 통근거리가 지역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III]		[모형IV]	
				B	$S.E.$	B	$S.E.$
상수항				2.578***	0.145	2.598***	0.145
통제변수	개인특성	성별		-0.033	0.021	-0.029	0.021
		연령		-0.020***	0.005	-0.018***	0.005
		연령제곱		0.033***	0.005	0.031***	0.005
		교육수준 (ref.=고졸)	고졸미만	-0.074†	0.041	-0.074†	0.041
			전문대졸	0.039	0.024	0.043†	0.024
			대졸 이상	0.079***	0.022	0.081***	0.022
		가구주 여부		0.003	0.023	0.010	0.023
		혼인상태 (ref.=유배우)	미혼	-0.167***	0.029	-0.164***	0.029
			사별·이혼	-0.095**	0.035	-0.095**	0.035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0.072***	0.015	0.076***	0.015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0.155***	0.014	0.152***	0.014
		일 vs. 여가(여가 중시 정도)		0.081***	0.010	0.079***	0.010
		종사상 지위 (ref.=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0.060*	0.028	-0.065*	0.028
			일용근로자	-0.254***	0.051	-0.271***	0.051
			고용원有 자영업	0.017	0.037	0.013	0.037
			고용원無 자영업	0.086***	0.025	0.072**	0.025
			기타	0.144**	0.051	0.123*	0.051
	가구특성	가구원 수		0.031**	0.011	0.031**	0.011
		주거점유 형태 (ref.=월세)	자가	0.046	0.037	0.043	0.037
			전세	0.067	0.037	0.065†	0.037
			기타	0.074	0.149	0.043	0.149
		부채유무		-0.133***	0.017	-0.131***	0.017
		가구소득 (ref.= 400~500만 원)	200만 원 미만	-0.136**	0.044	-0.135**	0.044
			200~300만 원	0.001	0.029	0.000	0.029
			300~400만 원	0.015	0.024	0.017	0.024
			500~600만 원	-0.019	0.024	-0.014	0.024
			600만 원 이상	0.067**	0.026	0.065*	0.026
설명변수	통근거리	통근거리		-0.005***	0.001		
		통근거리 범주 (ref.=5㎞ 미만)	5~10㎞ 미만			-0.137***	0.019
			10~15㎞ 미만			-0.105***	0.028
			15㎞ 이상			-0.124***	0.029
$F-value$				46.25***		44.51***	
R^2				0.1450		0.1489	
$Adj.R^2$				0.1419		0.1455	
N				7,665			

자료(설명): † p<0.1, * p<0.05, ** p<0.01, *** p<0.001

에 대한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전의 분석과 동일한 통제변수들을 사용하였고, 연속형의 통근거리([모형Ⅲ])와 통근거리 범주([모형Ⅳ])의 두 가지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Ⅲ]과 [모형Ⅳ]의 경우에도 개인 및 가구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들의 계수값 크기나 통계적 유의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통근거리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다른 조건을 통제할 때 통근거리가 멀수록 지역소속감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터까지의 거리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 [모형Ⅳ]에서도 기준집단(5㎞ 미만)에 비해서 그보다 먼 집단은 모두 (-)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어, 일터까지의 거리가 멀면 지역소속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조건을 통제할 때, 5~10㎞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지역소속감은 (기준변수인 5㎞ 미만 집단에 비해) 0.137점 낮았으며, 10~15㎞ 집단은 0.105점, 15㎞ 이상인 이들은 약 0.124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표 9]는 통근유형과 지역소속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도 이분형(0/1)으로 구성한 동일 구(區)내 통근 여부([모형Ⅴ])와 동일 구, 인접 시, 근접 시, 서울 등 여섯 개의 통근지역으로 구분한 더미변수([모형Ⅵ])의 두 가지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Ⅴ]와 [모형Ⅵ] 또한 통제변수들의 계수값 크기와 통계적 유의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먼 곳 또는 통근에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이들의 지역소속감이 낮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동일 구(區)에 속한 일터로 통근하는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이들에 비해 지역소속감이 0.092점 높았다([모형Ⅴ]).

[모형Ⅵ]의 결과를 살펴보면 동일 구(區)내 통근하고 있는 이들에 비해 '인천 내 다른 구', '인접 시 통근', '근접 시 통근', '서울로 통근', '기타지역 통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이

[표 9] 통근유형이 지역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V]		[모형VI]	
				B	$S.E.$	B	$S.E.$
상수항				2.475***	0.146	2.546***	0.145
통제변수	개인특성	성별		-0.028	0.022	-0.023	0.022
		연령		-0.019***	0.005	-0.019***	0.005
		연령제곱		0.033***	0.005	0.032***	0.005
		교육수준 (ref.=고졸)	고졸미만	-0.073†	0.041	-0.071†	0.041
			전문대졸	0.041†	0.024	0.044†	0.024
			대졸 이상	0.080***	0.022	0.084***	0.022
		가구주 여부		0.006	0.023	0.005	0.023
		혼인상태 (ref.=유배우)	미혼	-0.165***	0.029	-0.158***	0.029
			사별·이혼	-0.095**	0.035	-0.091**	0.035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0.076***	0.015	0.075***	0.015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0.151***	0.014	0.154***	0.014
		일 vs. 여가(여가 중시 정도)		0.081***	0.010	0.081***	0.010
		종사상 지위 (ref.=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0.064*	0.028	-0.069***	0.028
			일용근로자	-0.256***	0.051	-0.259	0.051
			고용원有 자영업	0.011	0.037	0.005	0.037
			고용원無 자영업	0.080**	0.025	0.078**	0.025
			기타	0.139**	0.051	0.139**	0.051
	가구특성	가구원 수		0.031**	0.011	0.033**	0.011
		주거점유 형태 (ref.=월세)	자가	0.053	0.037	0.054	0.037
			전세	0.072†	0.037	0.072†	0.037
			기타	0.073	0.149	0.083	0.149
		부채유무		-0.127***	0.017	-0.126***	0.017
		가구소득 (ref.= 400~500만 원)	200만 원 미만	-0.145***	0.044	-0.143**	0.044
			200~300만 원	-0.001	0.029	0.000	0.029
			300~400만 원	0.015	0.024	0.016	0.024
			500~600만 원	-0.018	0.024	-0.016	0.024
			600만 원 이상	0.067**	0.026	0.069**	0.026
설명변수	통근유형	동일 구(區)내 통근 여부		0.092***	0.017		
		통근유형 (ref.=동일 구 통근)	인천 내 다른 구			-0.066***	0.018
			인접 시 통근			-0.212***	0.041
			근접 시 통근			-0.152†	0.083
			서울로 통근			-0.159***	0.031
			기타지역 통근			-0.163†	0.089
$F-value$				46.65***		41.55***	
R^2				0.1461		0.1484	
$Adj.R^2$				0.1429		0.1448	
N				7,665			

자료(설명): † p<0.1, * p<0.05, ** p<0.01, *** p<0.001

들의 지역소속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수값의 크기로 미루어보아 '동일 구 통근 > 인천 내 다른 구 통근 > 근접 시 통근 > 서울로 통근'과 같이 먼 지역으로 통근하는 이들의 지역소속감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지역만족도나 지역소속감은 혼인상태, 건강상태, 여가 중시 정도, 가구소득 등과 같이 기존의 논의에서 비교적 널리 언급되었던 개인 및 가구특성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근(통근시간, 통근거리, 통근유형)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근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먼 지역으로 통근할수록 지역만족도가 낮았으며, 거주 중인 지역(군/구)에 대한 소속감 또한 낮음이 확인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통근은 근로활동을 위해 근로일에 반복적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활동이다. 과거에는 통근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불가피한 일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종과 직무에 무관하게 국내 대다수의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경험한 이후로 '통근 없는 삶'을 경험했고, 거주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통근이 개인 및 지역 사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깨달았다. 특히, 평균 30분 이상을 통근에 소요하는 인천광역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도 거주자 개인의 통근과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통근(통근시간 및 거리)이 개인의 거주 지역(구/군)에 대한 만족도 및 소속감과 어떠한 관

련을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통근 소요시간이 짧을수록 지역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근거리가 짧은 근로자, 즉, 일터와 거주지가 가까운 근로자일수록 지역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일터의 소재지와 거주지 행정구역을 비교해본 결과 거주지와 동일한 구의 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지역만족도가 인천 내 다른 구로 통근하거나, 서울로 통근하거나, 혹은 인접 시로 통근하는 근로자들의 지역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만족도에 대한 분석과 유사하게 통근시간이 짧거나 일터가 거주지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소속감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근이 지역만족도와 지역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통근을 시간(분)과 거리(㎞)로 구분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분석결과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근시간이 길수록 지역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시간의 범주별로는 통근시간이 30~45분 미만인 근로자에 비해 통근 소요시간이 15분 미만, 15~30분인 근로자의 지역만족도가 더 높았다. 둘째,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라면 통근의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개인의 지역만족도 또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근거리 범주별로는 5㎞ 미만에서 통근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5㎞ 이상인 근로자의 지역만족도가 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동일 구에 속한 직장으로 통근하는 근로자는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역만족도가 0.14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 구 내 통근하는 근로자의 지역만족도가 근접시로 통근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지역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통근시간이 길수록 지역소속감이 낮았다. 통근

시간 범주에 따라서는 30~45분 미만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통근시간이 1시간을 넘을 경우 지역소속감이 0.066점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통근거리가 멀수록 지역소속감이 낮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통근거리가 5㎞ 미만인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통근거리가 15㎞ 이상인 근로자는 지역소속감이 약 0.124점 낮았다. 여섯째,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동일 구에 속한 일터로 통근하는 근로자는 타지역으로 통근하는 이들에 비해 지역소속감이 0.092점 높았다. 또한, 동일 구 내 통근하는 근로자들이 인천 내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통근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지역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긴 통근시간이나 거리는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나 소속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도 확인되었다. 이는 통근여건의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애착이나 계속 거주의사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통근거리의 경우 일자리의 위치에 의해 정해지는 일인 만큼 무엇보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교통망 확충이나 대중교통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통근시간 감소 정책(교통체증 문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만족도와 지역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차이에 주목하여 어떠한 이유로 인천광역시 거주를 '선택'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만족하게 만드는지 또는 소속감을 공고히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연구와 함께 축적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지역밀착형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통근과 지역만족도나 지역소속감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인천에 거주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은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복합적인 감정이므로 보다 다채로운 특성을 변수화하여 반영한다면 설명력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의 특성만 고려하였을 뿐 인천광역시 및 개별 구/군이 가진 지역적 특성을 분석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특성(예컨대 주거환경을 이루는 다양한 요인인 주택유형과 면적, 병원 등 지역 내 편의시설 확충 정도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분석에 활용한 변수들만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계산했다는 한계를 담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인 다층모형 등을 이용한 후속연구를 통해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단순한 통근 소요시간이나 통근의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지만, 거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 용이성이나 도로 편의성은 통근의 질을 높이거나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통근수단이나 통근 시간대도 매우 중요한 요인임이 분명하지만 본 연구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넷째, 통근시간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그 자체, 임금수준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천광역시 사회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문은 포함되지 않아 분석결과의 활용에 상당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9)]

이처럼 많은 한계점을 담고 있지만 본 연구는 시간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공간적 차원에서 통근문제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동일 구 내로 통근하는 근로자들과 인천 내 다른 구, 인접 시,

9) 이는 분석결과에서 높지 않은 정도의 R^2값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물론 여러 특성을 가진 개인들에 대한 분석(개인단위의 분석)인 만큼 전체적인 지표나 지수화한 값 또는 지역별 평균 등과 같이 분산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료에 대한 분석에 비해 R^2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근로시간, 임금수준, 여가시간, 통근에 대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이나 주거특성 등을 보다 다채롭게 살핀 자료가 생산된다면 보다 설명력 높은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근접 시, 서울로 통근하는 근로자들을 구분하여 고려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행정구역이 근로자들의 심리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무엇보다 지역만족도나 지역소속감을 개인의 문제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차지하는 불가피한 통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소애착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는 장소에 대한 애착정도가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이수범 2013).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은 개인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을 향상하는 일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하는 몫이기도 하다.

지역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는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첫째, 인천광역시 내 충분한 일자리를 유치해서 인천이 베드타운으로서만 역할하는 것을 넘어서 생산기능을 갖춘 중심업무지구로 기능해야 한다. 지역 내 일자리가 충분하다면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이는 자치단체의 발전뿐 아니라, 지역 내 거주자들의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통근의 질을 높여야 한다. 통근이 하루 일과 중 일정 시간 이상을 반드시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의 통근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동일한 통근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쾌적한 광역버스에 승차인원 모두 착석하여 이동하는 것과 여러 번 환승하고 이동하는 것은 개인의 만족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노선을 확충하고, 운행간격을 단축해 다른 구 및 인접 시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인천시민의 통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고속 광역교통 수단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0)]

셋째, 여가 중시정도가 지역만족도 및 소속감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자치단체 내 종합운동장이나 지역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여가 및 운동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내 공원에서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거주민들의 지역 만족도 및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내 종합운동장 시설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 거주민들의 건강 유지와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인천은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2025년)'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지역의 인지도 및 브랜드가치 향상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APEC 정상회의 개최로 인해 관련 인프라 투자, 참가자·관광객 소비지출 및 관광 증대로 1.5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인천광역시 공식포스트 2023/2/8). 인천광역시는 이미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6년 제6차 OECD 세계포럼을 개최했고, 2023년 5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인천총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도시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

10) 통근시간에 적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지역만족도와 지역소속감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통근거리의 경우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한만큼) 통근시간을 줄이고 통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제법 멀리 떨어진 지역일 수 있는 서울로 통근하는 이들의 만족도 등이 비교적 양호함에 비추어보면 인천↔서울 간 어느 정도 양호한 교통연결망이 긍정적 작용을 한 것일 수도 있다. 향후 통근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근자들의 통근양상이나 수요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수도권 광역순환철도망의 확충과 같은 중·장기적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인천광역시가 다수가 거주를 희망하는 글로벌 광역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근로자들의 지역(구/군)에 대한 만족도나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통근을 살펴보고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강혜진. 2018.「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주민들의 지역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2): 67-99.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0.『어디 사세요? 부동산에 저당 잡힌 우리시대 집 이야기』. 서울: 사계절.

권미조·이준영·최낙혁. 2018.「사회적 통합과 삶의 만족도: 경기도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6(1): 339-363.

김아영. 2023.「다양성 특성은 소속감, 직업만족도,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용진·김성희. 2016.「신도시 거주민의 계속거주의사 결정 요인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5): 405-411.

김이선·손명아. 2018.「경기도의 지역 특성과 지역사회 경험이 거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19(3): 199-228.

김주진·나주몽. 2021.「한국 청년의 지역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비수도권 도시 내 지역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4(1): 211-232.

김준형. 2016.「통근시간이 노동활동과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연구」. 1-18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지현·강수진. 2021.「서울시민의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요인분석: 지역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39(3): 5-26.

김태훈·서인석·기영화. 2014.「커뮤니티웰빙 평가요소로서 지방행정서비스요인의 적합성분석: 경쟁가설모형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8(2): 81-109.

민보경. 2021.「수도권 주민의 행복과 영향요인 탐색 연구」. 도시연구 20: 147-182.

박관태·정보영·정문기. 2022.「공동체의식이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31(1): 157-186.

박길성. 2002.「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아세아연구 45(2): 109-139.

박보은·정선영. 2020.「대기오염에 대한 객관적 농도와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33: 255-291.

박준식·김영범. 2013.「지역격차 문제의 인식 지형과 변화의 전망: 영호남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균열로」. 지역사회학 14(2): 83-103.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4.「경기도내 2-30대의 의식분석과 도정의 연계 방안 연구」.

서재호·김혜정·이승종. 2012.「지방정부의 가치지향으로서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6(1): 33-57.

손낙구. 2008.『부동산 계급사회』. 서울: 후마니타스.

신종호·연은모·이유경·정은경·김명섭. 2011.「성취목표지향성, 학교소속감 및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4): 271-292.

양은모·배호중. 2023.「통근이 직장만족도 및 이직의향에 미치는 영향: 대졸 신규입직자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26(1): 73-111.

오미영. 2008.「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관계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대, 지역사회 만족 그리고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1): 327-350.

유경빈. 2017.「통근시간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유은영. 2018.「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 영향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5(1): 15-30.

유재언. 2016.「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평일 저녁 가족공유시간 영향요인: 요일별 퇴근시각, 귀가시각, 출퇴근시간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8(3): 32-59.

윤우석. 2017.「지역애착의 영향요인 파악을 위한 다수준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19(3): 107-151.

윤상훈·이재영. 2016.「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한 인천광역시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 규명」. 도시연구 10: 69-97.

이경영·김범석·정문기. 2018.「주거환경만족도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역애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7(1): 89-118.

이경영·정문기. 2021.「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차이 분석: 전라북도 경제활동인구(만 25세~49세)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0(2): 203-228.

이서연·조원지. 2022.「가족관계 및 지역사회 만족도가 노년기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안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3(3): 441-454.

이수범. 2013.「인천시민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이 인천의 지역성과 애착에 미치는

영향」. 인천학연구 18: 133-172.
이윤영·차운아. 2023.「수도권 근로자의 통근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시간부족감과 피로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62(1): 213-242.
이지은·이경은. 2020.「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2): 57-86.
인천광역시. 2021.『2020 인천의 사회지표』. 인천광역시.
장정순·임원선. 2015.「지역사회 애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경기도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5(2): 101-125.
정영아·김윤지. 2021.「머무르고 싶은 지역이란?: 지방정부 서비스와 재정이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3): 55-76.
조민지·임업. 2016.「거주지역의 소득혼합수준이 시민 자부심으로서의 장소애착심에 미치는 영향: 서울서베이를 활용하여」. 지역연구 32(3): 3-15.
지갑성. 2020.「주거환경요인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2): 238-263.
최윤지·고순철. 2020.「지역사회 만족도 영향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7(4): 199-210.
최희용·정문기. 2019.「지역사회애착도가 주민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5대 생활권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1(4): 855-878.
한국리서치. 2022.「지방자치제도가 지역소속감 및 지역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한국리서치 주간 리포트 여론 속의 여론 제180-1호. 한국리서치.
황명주·김형수. 2019.「지역사회조직과 연계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축 방안: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4(2): 207-227.
황정임·최윤지·조현민·윤순덕. 2011.「농촌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 및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8(4): 729-764.

Bernard, J. 2015. “Community satisfaction in Czech rural communities: A multilevel model.” *Sociologia Ruralis* 55(2): 205-226.
Besser, L. M., Marcus, M., and Frumkin, H. 2008. “Commute time and social capital in the U.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4(3): 207-211.
Brown, R. B., Dorins, S. F., and Krannich, R. S. 2005. “The boom-bust-

recovery cycle: dynamics of change in community satisfac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Delta, Utah." *Rural Sociology* 70(1): 28-49.

Filkins, R., Allen, J. C., and Cordes, S. 2000. "Predicting community satisfaction among rural residents: An integrative model." *Rural sociology* 65(1): 72-86.

Fitz, B. M., Lyon, L., and Driskell, R. 2016. "Why people like where they live: individual-and community-level contributors to community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6: 1209-1224.

Helliwell, J. F., and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Hirschman, A. O. 1970.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Vol. 25). Harvard university press.

Kitchen, P., Williams, A., and Chowhan, J. 2012. "Sense of community belonging and health in Canada: A regional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7: 103-126.

Koo, H., Yee, J., Nam, E. Y., and Kim, E. S. 2016. "Dimensions of social well-being and determinants in Korea: Personal, relational, and societal aspects."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3: 37-58.

Leviten-Reid, C., Matthew, R., and Wardley, L. 2020. "Sense of community belonging: exploring the impact of housing quality, affordability, and safety among renter households."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28(1): 18-35.

Marans, R. W., and Rodgers, W. L. 1975. "Toward an understanding of community satisfaction." In Hawley, A., and V. Rock (Eds.) *Metropolitan America in Contemporary Perspective,* 299-352. New York: Halsted Press.

Matarrita-Cascante, D., Brennan, M. A., and Luloff, A. E. 2010. "Community agency and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he case of La Fortuna, Costa Rica."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8(6): 735-756.

McKnight, M. L., Gibbs, B. G., Sanders, S. R., Cope, M. R., Jackson, J. E., and Park, P. N. 2019. "Small towns and urban centers: The relationship of distance and population size to community satisfaction." *Community*

development 50(4): 389-405.

Miller, M. K., and Crader, K. W. 1979. "Rural-urban differences in two dimensions of community satisfaction." *Rural sociology* 44(3): 489-504.

Rodgers, W. 1980. "Residential satisfaction in relationship to size of plac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4): 436-441.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지역사회 소속감." 국가지표체계. 2023.4.4.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8&idxCd=8073(검색일: 2023년 7월 22일)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 특성 항목 여성, 출산력, 아동, 인구이동, 통근·통학." 통계청 보도자료. 2021.11.29.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200&bid=203&act=view&list_no=415274(검색일: 2023년 3월 1일)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통계청 보도자료. 2023.8.22.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300&bid=211&act=view&list_no=426749(검색일: 2023년 10월 21일)

"2025 APEC 정상회의가 인천에 유치된다면 생기는 이점들은?" 인천광역시 공식 포스트. 2023.2.8.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386963&memberNo=10791453&vType=VERTICAL(검색일: 2023년 7월 20일)

한국교통연구원 View_T 홈페이지(https://viewt.ktdb.go.kr)

Esran 위도경도찾기 홈페이지(http://map.esran.com)

부 록

[부록 표 1] 분석에 이용한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

(N=7,665)

	㉮	㉯	㉰	㉱	㉲	㉳	㉴	㉵	㉶	㉷
㉮	1.000									
㉯	0.309***	1.000								
㉰	0.211***	0.050***	1.000							
㉱	0.218***	0.063***	0.990***	1.000						
㉲	0.135***	0.278***	-0.268***	-0.260***	1.000					
㉳	0.188***	0.291***	-0.157***	-0.150***	0.627***	1.000				
㉴	0.120***	0.109***	-0.044***	-0.025*	0.117***	0.103***	1.000			
㉵	0.001	0.013	-0.213***	-0.250***	0.081***	0.026*	-0.029*	1.000		
㉶	-0.150***	-0.084	-0.266***	-0.275***	0.054***	0.040***	-0.003	0.138***	1.000	
㉷	-0.096***	-0.070***	-0.231***	-0.241***	0.060***	0.060***	0.000	0.113***	0.744***	1.000

자료(설명): ㉮: 지역에 대한 소속감, ㉯: 지역만족도, ㉰: 연령, ㉱: 연령제곱, ㉲: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 일 vs. 여가(여가중시 정도), ㉵: 가구원 수, ㉶: 통근시간, ㉷: 통근 거리

[부록 표 2] 구별 응답자의 통근 양상

(단위: 분, ㎞, %)

	통근시간 (편도기준, 분)	통근거리 (㎞)	통근유형(통근지역)					
			동일 구	다른 구	인접 시	근접 시	서울	기타지역
중구	31.65	8.34	50.4	39.8	3.2	-	6.5	0.2
동구	28.18	6.39	43.4	45.3	4.2	0.3	6.4	0.4
연수구	33.81	10.71	35.4	44.2	5.2	3.2	9.9	2.2
남동구	27.18	7.04	48.2	41.8	3.1	-	6.4	0.4
부평구	34.40	7.80	31.2	41.1	10.3	0.9	15.1	1.3
계양구	31.15	7.67	48.2	37.0	2.8	1.5	9.7	0.9
서구	36.91	10.49	36.8	42.1	3.4	1.8	14.8	1.1
미추홀구	30.83	6.90	44.2	46.4	2.2	0.3	6.3	0.5
강화군	23.78	8.74	91.4	2.8	3.9	0.3	1.7	-
옹진군	12.36	2.04	92.4	7.4	0.2	-	-	-

국 문 초 록

통근이 거주지역 만족도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 거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은모(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 연구위원)
배호중(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거주지역은 개인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근은 근로자의 거주지역 만족도 및 소속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지역에 대한 높은 만족도 및 소속감은 개인은 물론, 거주 지역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에 대한 만족도 및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천 거주 근로자들의 통근이 거주 지역(구/군)에 대한 만족도 및 소속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일터와 거주지가 가까운 근로자일수록 지역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일 구 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지역만족도가 인천 내 다른 구 또는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간과 공간적 차원에서 통근문제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인천광역시, 지역만족도, 지역소속감, 통근

Abstract

Commuting and Community Satisfaction:

The case of Incheon

Yang, Eunmo(Reseach Fellow, Gangwon Institute)
Bae, Hojoong(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commuting affects the community satisfaction and sense of regional belonging to the region where individuals live, using the data from the '2020 Incheon Social Survey', which was surveyed on a sample of 6,000 households in Incheon. Commuting is defined in terms of time and distance.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ighlight the fact that long commuting hours negatively affect individual community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physical travel distance between work and residence also affects individual community satisfaction. Additionally, the community satisfaction of workers commuting to the same district was higher than that of workers commuting to nearby cities.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considers both commuting hours and dista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urban planning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Key words: Community Satisfaction, Commuting Time, Sense of Regional Belonging